

지역 매아리

고창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3월 말까지 14개 읍면 동시 진행

고창군이 오는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오는 6·13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14개 읍·면사무소에서 동시 실시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이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별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므로, 조사 기간 동안 거주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정읍시,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 확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보다 인상돼 올해는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해 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47만원에서 올해 452만원으로 1.2% 인상됐다"며 "이는 곧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이 완화된 것이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30%~50%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수급자 선

정 시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부양 능력 유무를 판정하고 부양비를 산정했다.

하지만 시는 이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 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수급자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부양 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를 말한다.

시는 이후에도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보다 더 완화·지원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양 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2022년 1월부터 부양 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도 수급자로 선정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정부 양곡을 할인 지원한다.

2017산 양곡 10kg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전년도 1만2840원에서 1만4940원으로 16.4%를 인상해 지원한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전년도 7140원보다 14.9% 인상된 8200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 지원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오복공감 이야기마당' 토크쇼 연초방문인 18일 동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복공감 이야기마당 토크쇼 성료

부안군 동진면민 150여명 참석... 주민의견 귀담아

부안군 '오복공감 이야기마당' 토크쇼 연초방문인 18일 동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150여 동진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 장지산 동진면장은 2018년 동진면 미래뉴스를 업무보고 형식으로 참석 내빈과 면민들에게 보고했으며, 부안군에서는 그동안의 13개 성과에 대해 군민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부안군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치러 졌다.

100분 동안 13개의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부안군수와 소관 실과장들을 경청하는 동진면민의 관심 어린 눈빛으로 진지하게 이뤄졌다.

장지산 동진면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막둥아들 같은 면 직원의 따뜻한 현장행정으로 2018년에도 면민을 위해 오복 가득한 동진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안=이옥수 기자

작은말고개도로 3월에 뺨 뚫린다

정읍 상동회관~영창아파트 구간 72억원 투입... 교통정체 해소 등 기대

정읍시 작은말고개도로(이하 작은말고개)가 3월 본격 개통된다.

총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되는 작은말고개는 상동회관 사거리에서 구룡동 영창아파트 입구까지 이어지는 연장 878m, 폭 20m의 4차선 도로이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착공,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12월 초 잦은 눈과 비가 내리다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지 못했다.

시는 "그 같은 상황에서 포장공사를 하면 품질 확보가 어렵고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며 "해빙이 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 마무리하고 3월 중 개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영창아파트→상동회관 방향 도로 옆에 있는 너티나무 인근 일부 구간(L=63m)에 설치된 인도 폭 일부를 조정, 도로 선형을 완하시킬 예정이다. 해당 구간이 내리막 커브길로 형성돼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또 작은말고개 도로 개통에 이어 올해 추진되는 서부산업도로(상동주유소~상동회관)의 오는 12월 개통에 대비, 상동회관 앞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할 계획이다

두 도로가 본격 개통되면 상동회관



정읍시는 작은말고개도로가 3월 본격 개통된다고 밝혔다.

앞 교차로가 6거리로 형성돼 교통신호 체계를 유지할 경우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원활한 차량통행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단, 작은말고개가 개통되는 3월부터 서부산업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우선 신호체계로 운영 할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해 회전교차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검토를 받아 실시계획을 마쳤으나 편입토지와 건물 소유주와의 보상협약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를 시

작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만큼 소유주들을 잘 설득해 보상을 마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은말고개와 서부산업도로가 개통되고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 교통량 분산 등의 효과로 동초등학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횡단보도 LED 투광등 설치

부안군은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하려고 졸포면 원 대동마을 등 관내 15개소에 횡단보도 LED 투광등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들여 마을 앞 버스승강장 주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LED 투광등 설치가 완료된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도로변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LED 투광등 설치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LED 투광등은 기존 나트륨등 대비 70% 이상 절전효과와 함께 뛰어난 시인성은 물론 5만 시간에 이르는 긴 수명으로 유지관리 면에서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더불어 행복한 설명절 분위기 조성

정읍시, 전통시장 활성화

저소득층 지원 등 준비 만전

정읍시가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설명절(2.15. ~ 2.18.) 나기' 분위기 조성에 발 빠르게 나섰다.

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희망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단체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위문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체 예산으로 시설과 저소득 가구에 모두 9000만원 상당의 위문품과 온누리 상품권 등을 전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757개소 복지시설과 단체에 단품미 인 쌀과 라면을 전달·위로하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한 소외계층 100가구에는 위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한부모가정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해 저소득층에 온기를 불어넣고

전통시장 활성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전북도 지원 예산으로 30가구 명절 위로비(300만원)를 전달하고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87가구에 난방비(1730여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내달 8일부터 14일까지를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유관기관과 공무원의 사회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봉사 및 위문 등을 유도해 어느 때보다 훈훈한 명절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시는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이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읍면동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자체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찰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